

白蓮 池雲永의 未公開 文卷著冊 目錄

柳 永 博

一. 老畫伯의 好意

이미 수년 전의 일이었다. 때는 1977년,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중순(19일~24일) 시내 太平路에 있는 新聞會館 展示場에서 80세에 가까운 한 老畫家의 첫 個人展이 열리어, 그 때 신문, TV 등 매스컴에서도 이 個人展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바 있거니와 여러 모로 매우 異彩를 끌었다. 그러면 이 老畫家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 畫伯이 젊은 시절 投身했던 獨立運動의 한 插話를 먼저 여기에 소개부터 하기로 하겠다.

“살랑이는 소슬한 바람이 부는 음력 8월이었지. 그 때가 어느 해(年)였느냐구? 그게 바로 1914년이었어. 내가 大韓獨立軍에 들어가서 國內 資金調達員이 되었지. 그 때 내 나이 스물여섯이었으니까 한참 나이였지요.”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어떻게 조달 하였습니까.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한 가지 말하리다. 參旰圖를 가지고 滿洲로 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참으로 신명나는 일이었지요. 아까 말했듯이 음력 8월달이었는데, 參旰圖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모두 拾圓짜리 紙幣로 바꾸어 가지고 매물은 아주 현웃 속에 넣고 껌메어 입은 채 빌어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그야말로 乞人行色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해서 만주 하르빈을 거쳐 지지하르까지 갔었지.”

—그러면 서울에서 만주 지지하르까지 그 먼 거리를 쭉 걸어서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서울에서 하르빈까지는 기차를 타고 하르빈에서 하차했습니다.”

—하르빈에서 기차를 내린 다음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르빈역에서 기차를 내려서부터는 案内를 받았습시다. 내가 하르빈역에 도착한 것은 하오였는데, 그래서 맨 먼저 食堂에 가서 식사부터 했지요. 그것도 우리 韓國人이 경영하는 한국음식집에서요. 그런 연후에 하르빈에서부터는 여러 날 걸려서 지지하르에 도착했는데 걸어서 갔어요.”

—하르빈역에서 하차하여 그 때부터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안내인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金佐鎭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吳氏 부인이라고 그 때 40세쯤 되었는데 내가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지하르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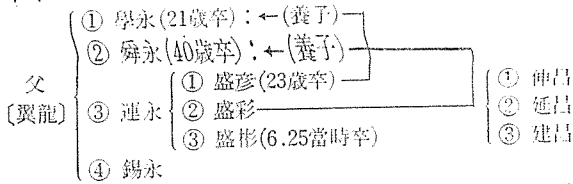
“그야 물론 金佐鎭 장군이었지. 내가 도착하니까 반식을 하고 맞이해 주었지요.”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 전에 老畫伯과 筆者가 주고 받은 對話 중의 한 토막이다. 이 畫家가 바로 얼마 전에 作故한 春草 池盛彩 畫伯이다. 이 분은 우리 畫壇에서 널리 알려진 東洋畫의 元老作家로서 小琳 門下에서 그림을 배웠던 바, 그 때 같이 그림을 배우던 畫友 중에는 靑田 李象範, 小亭 卞寬植, 心汕 盧壽鉉, 鼎齊 崔禹錫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先親되는 白蓮 池雲永의 筆力을 이어 받아서 그간 많은 力作을 그렸지만, 첫 個人展을 80세가 다 되어 열었다는 데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그 때 展示된 여러 作品들 중에 大作도 많았다. 즉 <寒山歸鴉> 등 좋은 作品들이 특히 눈길을 모았는데, 한편 春草翁의 先親인 白蓮의 遺作 2點이 매우 주목되기도 하였다. 《梅花書屋》과 《秋江明月》이 그것이었는데, 아뵤든 白蓮 池雲永은 韓末에 詩·書·畫에 能했던 人物로 누구나 그렇게 일러오는 터이다. 筆者가 春草畫伯을 자주 만났던 것은 그 분의 그림도 좋아서였지만, 저 유명한 甲申政變의 主動人物인 金玉均을 暗殺하려던, 白蓮 池雲永과는 父子間이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 한 白蓮에 관한 새로운 資料와 꾸밈 없는 實際的 證言을 얻기 위해서 春草畫伯을 번거롭게 한 적이 많았다. 어느 날은 老畫伯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눌러 앉아 각종 資料들을 뒤지기도 하고, 필요한 證言도 기록하여 이제는 可謂 白蓮一代記를 作成해도 될만큼 많은 資料들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물론 老畫伯의 好意와 깊은 配慮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제 春草畫伯은 現世의 人이 아니다. 老畫家는 가고 없지만, 그가 白蓮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證言해 주고 각종 자료를 있는대로 筆者에게 公開하여 준데 고맙게 생각한다.

二. 白蓮 池雲永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事實

池雲永은 1851년(哲宗二年) 忠淸道 忠州 출신으로 그의 父 翼龍의 아들 四兄弟 중 세째로 태어났다. 맏형인 學永은 成婚하였으나 자식을 두지 못한 채로 나이 스물 하나에 得病으로 일찍 죽고, 두째형인 舜永은 40 將年の 나이에 죽었다. 舜永 역시 後嗣가 없었다. 세째가 바로 雲永이며 동생 錫永은 우리 나라 醫學史에 牛痘로 유명

한 그 池錫永이다. 그러면 그의 家系를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이 家系에서 보는 바와 같이 池雲永의 四兄弟 중 위로 두 형이 일찍 죽자, 자기 아들 三兄弟 중에서 큰아들 盛彥을 큰형(學永)에게 養子를 보내고, 둘째형(舜永)에게는 春草를 養子보냈다. 그런데 큰형에게 養子간 盛彥이 23세에 또한 일찍 죽었다. 그리고 셋째아들 盛彬이 6.25당시 죽었다. 이로서 보아 큰형인 學永은 絕孫되고, 둘째 형인 舜永은 春草를 養子 받아 代를 이어가고 있는데, 6.25 당시에 죽은 셋째 아들인 盛彬의 후손을 筆者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盛彬의 후손이 있으면 雲永의 血孫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으나, 그렇지가 아니 하다면 家系上으로는 池雲永은 絕孫된 셈이다.

그러면 池雲永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가운데에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밝히어 보기로 하겠다. 池雲永은 어린시절부터 매우 이상한 취미를 가졌었다. 즉 배(廊)머신을 만들어 그 속에 가는 모래를 넣어서 질신을 신고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걸어차는 것을 일삼았다. 한편 수수를 심어, 봄에 그 싹이 틀 때부터 가을이 되어 그 수수가 다 자라고 매마를 때까지 뛰어 넘는 것이었다. 우람한 나무도 걸어 차기를 數年을 거듭하니 드디어 죽고 말더라는 것이고, 수수가 싹이 움틀 무렵이야 뛰어 넘는데 무슨 힘이 들랴마는 사람 키 보다 더 높게 자라면서는 그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 쉬임 없이 매일 계속하였더니, 새싹이 돌아 날 때나 수수가 장대 같이 높게 자라서도 뛰어 넘는데는 매일반으로 쉬었다고 한다. 이러한 強度 높은 特異한 體力 단련과 武術을 연마한 까닭으로 池雲永은 青年時節에 <택견>의 高段者가 된 것이었다. 그가 日本으로 金玉均을 殺害하러 가던 때가 1886년(高宗二十三年) 5월이었으므로 그의 나이 서른여섯이었다.

甲申政變 후에 우리 나라 朝廷에서는 일본에 亡命해 있는 金玉均 朴泳孝 등을 逮捕引渡해 줄 것을 日本政府에 要求하다가 實現되지 못하자, 1885년(高宗二十二年)에 張滌奎 宋秉峻 등을 내세워 金玉均과 잘 아는 사이였던 江華府留守 李載元의 이름으로 再次舉事를 圖謀하자는 密書를 지니고 渡日케 하였다. 그리하여 無理 없이 金玉均을 接近하게 되었다. 그리고 金玉均은 이 者들을 의심 없이 대하게 되고, 李載元에게 回信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 回信內容에는 壬辰亂 당시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여와 土着한 우리 나라 사람의 後孫 중 1,000명을 뽑아 이끌고 우선 江華府에

上陸하여 서울을 치고 戚族을 몰아 내어 政局을 一變시키자는 密信이었다. 金玉均이 李載元에게 보낸 密信原本은 高宗에게 바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當初 外交의 人 經路를 통해서 逮捕引渡 받고자 하다가 失敗한 터에 그러한 密信을 確認한 우리나라 朝廷에서는 즉시 逮捕方法을 바꾸게 되었다. 즉 國內誘致計劃에서 現地暗殺計劃으로 變更한 것이다. 계획을 변경하여서도 역시 金玉均과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 이번에도 金玉均 朴泳孝 등과 관계가 깊었던 池雲永을 擇한 것도 한 가지 利點이었고, 그 보다는 더 크게 고려한 것은 暗殺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가지 武術에 能하고 體力이 좋은 池雲永이 가장 적합한 人物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池雲永이 어릴 때부터 特異한 취미를 가졌다함은 위에서 말했지만, 그 밖에도 또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寫眞에 관한 그의 깊은 관심이었다. 사진술을 우리나라에 最初로 導入한 사람이 바로 池雲永이었기 때문이다. 이 方面(寫眞)의 전문가는 어떠한 起源說을 말할지 모르나, 아뵐튼 池雲永이 最初의 한 사람이었던 사실은 절대로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金玉均을 暗殺하기 위해서 渡日할 때에도 그의 여행 목적은 寫眞器具를 사러가는 것으로 위장하였던 것이다. 池雲永이 우리나라 最初의 寫眞館과 寫眞器具商店을 연 곳은 麻洞(지금의 宗廟西側)이었다. 2층 건물이었는데 後日 이 建物は 漢城新聞이 쓰기도 하였다. 池雲永이 그 무렵 宮中에서 찍은 사진유리原版은 6.25 때까지도 春草畫伯이 保管하고 있다가, 公州로 피난하여 있을 때 明成皇后의 사진유리原版은 도난을 당하고, 高宗과 純宗의 寫眞유리原版은 失手로 깨지고 말았다. 殘餘一枚는 서라벌藝大 寫眞科 교수실에서 빌려갔다고 春草는 말했고, 또한, 1973년 8월 20일 東亞日報社에 당시의 사진 3枚를 빌려 주었다고 한다. 筆者는 春草畫伯을 통해서 사진에 관련한 사실을 많이 들은바 있으나, 이 곳에서는 이만 줄이기로 한다.

池雲永은 高宗의 密旨(金玉均 暗殺)를 받고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칼을 손수 만들었다고 한다. 義禁府 供招에도 暗殺武器는 雙劍을 지니고 갔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池雲永의 그림 중 장기의 하나가 바로 <一心劍>이다. 後日 日帝統治下의 總督이던 齊藤에게 이 一心劍을 그려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白蓮의 그림 一心劍을 보고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당시로서는 巨額인 千圓을 보대 온 일이 있었다. 지금도 白蓮의 그림 一心劍이 現存하고 있다. 池雲永이 金玉均을 暗殺하려고 渡日하였다가 잡혀 송환되어 와서 右捕盜廳(지금 光化門)에 下獄되어 1個月 동안 問招를 받았다. 始終 高宗의 密旨를 받은 사실을 否認하였다. 그 한 場面은 다음과 같다.

—아뢰어라!

“假稱 上命이었다.”

—그러면 國王委任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 나라 萬歲曆에서 옥새를 보고 위조하였다.

國王에게 不利한 供招는 一切 인정하지 않는 義禁府의 記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 후 池雲永은 平安道 寧邊 땅에 流配되어 귀양살이를 하였다.

三. 未公開 文卷著冊의 目錄

<私信>

- 1.私信(朱氏에게) 1枚(1921.12.26)
- 2.私信 1枚
- 3.私信 1枚
- 4.私信 두루마리
- 5.私信 두루마리
- 6.私信 두루마리
- 7.私信 두루마리
- 8.私信(東京市四谷區中町三丁目四, 前朝鮮總督齋藤大人閣下勿鑑)
- 9.私信(日人에게)
- 10.私信(大韓民報社長 韋滄先生閣下)
- 11.私信(朴多山 刺史台下)
- 12.私信(齋藤總督大人閣下勿鑑) 두루마리
- 13.私信(崔麟의 편지)
- 14.私信(李完用殿升啓)
- 15.私信(閔章植에게) 朝鮮獨立民主政府 樹立促成委員會
- 16.私信(奇茂園先生書)
- 17.私信(藏亨文衡先生) 두루마리

<祝文>

- 1.祝文 3枚
- 2.祝文(醫學校卒業式祝辭, 池錫永을 대신하여 쓴 것)

<拓本>

- 1.拓本(安東金氏) 1枚

<碑文>

- 1.牧使公碑文(義州牧使 池有容) 1枚

<藥方文>

- 1.藥方文 1枚

<詩集>

- 1.朝鮮興八十一韻 5枚
- 2.野言二十首 1枚
- 3.紀元節詞十首 1枚
- 4.香秋山館集(甲戌) 10枚
- 5.柳下集抄 1枚
- 6.月渡松江十首 1枚
- 7.香秋館牧草(乙亥) 10枚
- 8.香秋館續草 印刷(小型版)
- 9.十好堂集詩略草 6枚
- 10.木密山房集 두루마리
- 11.珊瑚水晶閣集 1冊

<歌詞>

- 1.詩典當請貸文 30枚
- 2.雷興真人歌 30枚
- 3.錢狂曲 1枚
- 4.一根雙筠杖歌 1枚
- 5.詠國會 1枚
- 6.鄙稿 1冊
- 7.四海風雲歌 1枚

<聲音學>

- 1.朝鮮文重聲字 65枚
- 2.朝鮮文長音字竊造趣旨書 3枚

<畫>

- 1.君子圖

2. 東坡先生後赤壁圖
3. 女將軍圖

<畫題>

1. 畫題 韓紙大型 10枚
2. 三十三畫達磨像綠赴

<祭文>

1. 神宮祭文 1枚

<寺>

1. 冠岳區戀主庵
2. 神恠記(壬子六月二十五日)

<夢事>

1. 夢事解 1册
2. 夢事記 30枚
3. 神異記夢(池錫永의 한글로 번역) 1册

<宗教>

1. 大倣教(草稿) 唐紙 1枚
2. 太上天通經 3枚

<經濟>

1. 均商共產比較論 1枚
2. 均商法(草稿) 1册
3. 重麥說 1册
4. 均商法(印刷) 1册

<政治>

1. 關帝論 5枚
2. 上玉皇上帝書 1枚
3. 第三次上書(丁卯九月初一日)
4. 關帝論(戊辰五月二十一日) 15枚
5. 西來眞儀顯末(庚申五月二十七日) 38枚
池錫永의 글씨
6. 禮泉錄說 1枚
7. 白蓮片言稿 61枚
8. 朝鮮獨立談諧實記 1枚
9. 白蓮近稿 38枚

10. 雲峰雜著(甲戌) 46枚
11. 上東鄉元師書 18枚
12. 白蓮隨錄 韓製本 1册
13. 星十衛門大臣勤上當兮
大皇帝號書(草本)

<卜術>

1. 卜禧卷(四六版) 10枚

<譜>

1. 白蓮志異(四六版) 29枚
2. 不可思議 23枚

<其他>

1. 載繼世方典 1枚
2. 餓死笑 2枚
3. 傳奇大說 27枚
4. 一指一手論 1枚
5. 道德新論三篇 1枚
6. 公平道學言 1枚
7. 勤學通文 1枚
8. 論斷醫書 1枚
9. 弦上矢 1枚
10. 北斗進命經 1枚
11. 時計論 1枚
12. 豫告 1枚
13. 天下大狂 1枚
14. 虛空眞實 30枚
15. 修身 1枚
16. 兩李幽史(池錫永의 한글로 記述) 1册
17. 儒佛合璧詩論 1册
18. 中華民國國旗論 1册
19. 八樂仙玲瓏塔 1册
20. 壬戌元朝說(印刷) 1册
21. 奇旨上書 1枚
22. 白蓮狂記(印刷) 1册
23. 齊藤・內宇・宇坦 總督에게 보낸
私信 등, 重任朝鮮總督歌를 비롯하여
서 公開할 수 없는 것은 省略한다,

四. 目錄解題

叙上の 目錄 중에서 몇 가지는 이미 日帝治下에서 世上에 公刊되었지만, 나머지 全部는 모두가 未公開의 資料들이다. 이 未公開 資料 중에 또한 몇 가지는 日帝時에 出刊하려고 심사를 받다가 許可되지 아니 한 것이 있다. 그리고 大著가 상당수 있어 서 매우 稀貴한 資料로서 池雲永의 文卷著冊을 모두 합하면 실로 방대한 量이다.

筆者가 위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春草畫伯을 자주 찾았던 것은 그의 父親인 白蓮이 남긴 記錄 중에서 金玉均과 관련된 記述이 어디엔가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였다. 春草畫伯이 所藏하고 있지 아니 하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었다. 1894년 3월 28일 金玉均在 洪鍾宇의 손에 暗殺되었으나 이 洪鍾宇는 暗殺計劃의 네번째로 뽑힌 下手人이었다. 즉 朝鮮 朝廷에서는 제1단계로 外交經路를 통해서 引渡 받으려다 거절 당하자, 제2단계의 방법은 非常手段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은 金玉均을 誘致歸還케 한 다음 일망 타진 하려는 방법이 였다. 그러나 이 計劃 역시 實現되지 못하자, 제3단계의 방법으로 暗殺計劃을 새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 첫번째 人物로 張滌奎·宋秉峻, 두번째가 바로 池雲永이 였고, 세번째가 李逸植, 네번째가 洪鍾宇였다. 그리고 이들 下手人은 金玉均을 討滅하는데 세 가지의 方策을 지니고 渡日하였는바, 그 上策으로서는 사로 잡는 것이었다. 中策으로서는 隱暗戮斬하여 屍身을 駐日 朝鮮國公使館에 보내는 것이 였고, 下策으로서는 이도 저도 되지 아니 할 경우에 거리에서나 人家에서나 닥치는 대로 暗殺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네번째의 下手人인 洪鍾宇가 中國 上海까지 따라 가서 下策의 방법으로 끝내 暗殺하고 말았다. 이들 暗殺下手人 가운데 文筆力이 있는 사람은 白蓮과 洪鍾宇이었다. 洪鍾宇 역시 많은 글을 쓴 사람이지만, 그 보다는 池雲永이 量的으로 훨씬 많은 것은 물론이다.

池雲永이 渡日하였다가 잡혀 돌아와 寧邊에 귀양가서 지나는 동안, 洪鍾宇가 그 곳을 찾아가서 白蓮을 만나 金玉均의 暗殺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白蓮이 寧邊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써 놓은 「謀誅玉賊渡海入日本之作」을 드디어 찾아내 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白蓮의 詩稿인 「珊瑚水晶閣集 詩卷之四」에 收錄되어 있다. 이 「珊瑚水晶閣集」은 白蓮이 1886년에서 1888년까지의 3개년(丙戌, 丁亥, 戊子)에 걸쳐서 쓴 詩文과 기타의 記錄이 收錄되어 있는데, 그가 直接 쓴 親筆初稿本이다. 池雲永이 金玉均 暗殺計劃에 관해서 自身이 직접 記述한 當事者記錄으로서는 最初로

發見된 것이며, 아직은 唯一한 것이다. 史料上으로도 제1급에 속하는 貴重한 資料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池雲永의 文卷著冊目錄 中에서도 가장 比重이 큰 것이라고 하겠다. 꿈의 풀이에서 卜術과 같은 無數雜多한 것은 여기에 論外로 하더라도 政治分野에서 「玉皇上帝書」는 호화로운 장정의 大著이며, 「中華民國國旗論」과 같은 特異한 考察도 있고, 經濟領域의 「均商法」은 白蓮이 經濟政策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좋은 예이거나 社會關係에 보인 그의 관심 역시 「新道德論三篇」에 잘 나타나 있다. 宗教에 대한 白蓮의 생각은 大宗教와 太上大通經에 잘 反映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聲音學에도 남다른 記錄을 남겨 朝鮮文重聲字는 전문적인 領域에 一步를 들여놓은 것이었다. 그가 남긴 많은 私信을 읽어 보면 白蓮의 末年私生活相이 如實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만한 것은 白蓮의 詩文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白蓮의 詩稿인 「珊瑚水晶閣集」 中에서 二·三首를 이곳에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靑銅古佛大如山
宮殿連雲五百間
何用莊嚴爲色相
衆生心是世尊顏

靑銅古佛은 山 같이 큰데
五百間의 宮殿은 구름에 닿았구나.
이 장엄한 色相은 누구를 위함일까
부처님의 얼굴은 衆生의 마음일테라.

池雲永이 滯日期間에 각처를 돌며 詩를 지었던 것 같다. 위의 詩는 일본 奈良에 들렀을 때 지은 <奈良郡大佛>이라는 題가 붙은 七言詩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돌아와 귀양가는 途中에 지은 詩가 매우 많은데, 그 中에 <臨津江舟中述赴謫之意>를 보면 다음과 같다.

臨津江水碧於天
下馬登舟却浩然
無數鳴蟬深樹裏
一雙飛鷺遠山前

臨津江물은 하늘 보다 푸르러
下馬登舟의 이 浩然함이여
깊은 숲속의 매미는 수없이 울어대고
한쌍의 해오라비는 먼 山으로 날아 가누나.

白蓮이 귀양길에 임진강을 건너며 지은 詩로서 그의 心情이 잘 그려져 있다.

끝으로 池雲永의 「珊瑚水晶閣集」에 收錄된 <謀誅玉賊渡海入日本之作>과 詩文은 稿를 달리 해서 學界에 正式으로 公開·報告하려고 한다.